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The Needs of Digital Archive Development for the Records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1800-1910)

장윤금 (Yunkeum Chang)**

초 록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사에 대한 역사는 19세기 말 쇄국정치가 막을 내리고 서구문명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의사 혹은 교사 등의 전문가 신분으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기록물은 단순한 종교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 정치, 경제,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 자료의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시도는 현재까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 서적, 정기간행물, 일기, 편지, 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초기선교사 자료는 현재 이들을 파송한 선교회, 신학대학, 정부기관,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선교사가족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 자료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체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1800년대부터 일본강점기 이전 1910년으로 제한하였다.

ABSTRACT

The early history of foreign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has begun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y came to work as professionals such as teachers, medical doctors, etc. as the nation opened its door to western culture with the fall of national isolationism. Their records are considered crucial resources that enable us to shed new light on modern Korean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beyond mere religious value. Despite the recognition of such historic value of early missionary resources, however, there has been serious lacking of a systematic attempt to develop policies and plans for making it easy to collect, preserve and access the resources. Up to date, the records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in diverse forms of mission reports, books, periodicals, personal diaries, letters and photos, are scattered around various places, including their home country churches, governments, libraries, museums, research institutes and hom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basic resources on the archival status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needed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and systematic digital archive system,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resources and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The study covers the period of 1800s to 1910, that is from the beginning of Protestant missionaries entering into Korea until the start of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0.

키워드: 초기외국인선교사, 선교사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요구

early foreign missionaries, missionary records, digital archive, information needs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unkeum@sm.ac.kr)

- 논문접수일자 : 2013년 12월 2일 ■ 최종심사일자 : 2013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자 : 2013년 12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0(4), 265-281,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6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역사는 한미수호통신조약(1882년)이 체결되고 난 후 1884년 미국의 북감리회 맥클레이 목사(R. S. Maclay)가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북감리교회의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부부와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Horace Underwood)가 1885년 제물포항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크게 의료, 교육, 선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시 선교사를 통해 서구의 기술문명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던 조선정부와 교육 및 의료사업을 전도를 위한 기반으로 이해한 선교사들의 초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광호, 1987; 이덕주, 1995). 하지만 제중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설립과 더불어 해민원과 같은 고아원 설립 등 선교사들의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은 개화기 조선의 근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선교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광호(1987)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설립과 근대 교육의 경우 기독교교육 혹은 일반사적인 접근뿐 아니라 구한말 민족교육운동에서 차지하는 기독교계 학교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 및 기록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종교적인 기록물로서의 개념을 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역사적인 활동과 업적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기독교 관련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초기선교사 자료는 보고서, 사진, 일기, 편지, 녹취 자료 등 다양하며 현재 교회단체, 대학, 도서관, 박물관, 역사학자, 선교사가족 등에 의해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 자료의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시도는 현재까지 매우 미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및 연구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역사 및 선교사 자료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 및 경로 그리고 주요 활동과 업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즉 이러한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회 혹은 출신대학

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소장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교사들의 활동 및 업적은 선교사들의 활동자료가 단순한 종교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초기 선교사 기록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이용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은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관련 교수, 연구원, 선교사 자손을 포함한 총 7명을 대상으로 60분에서 80분간 진행되었다.

넷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 자료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교사 자료의 보존 및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1800년대부터 일본강점기 이전인 1910년으로 제한하였다.

2. 초기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

2.1 선교사들의 조선 진출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는 대원군의 정치적 실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882년 미국과의 한미수호통신조약 이후 당시 일본 감리교 선교부 책임자로 있던 맥클레이(R.S. Maclay)가 조선을 방문하여 1884년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에 대한 유히를 받음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후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Horace Allen)이 의료선교사로 입국하였으며 뒤를 이어 이듬해인 1885년 4월 미국의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와 북감리교회 소속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부부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아펜젤러와 함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스크랜튼(W.B. Scranton) 부부와 그의 어머니 스크랜튼 대부인(M.F. Scranton)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홍치모, 1984).

이러한 미국의 조선 진출을 촉진시켜준 계기가 된 사건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인 소유의 제너럴 셔먼호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 개신교의 토마스 선교사(Robert J. Thomas)가 통역인 신분으로 타고 있었다. 이들은 토마스선교사의 통역으로 교역을 요구하였으나 평양성 근처 대동강변에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탔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다. 즉 제너럴 셔먼

〈표 1〉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사: 1884-1910

	NP	*NM	SP	SM	*AP	*CP	*CE	Others	Total
Number	165	114	62	46	27	15	16	54	497
%	33.1	22.9	12.4	9.2	5.4	3.0	3.2	10.8	100

(*) 대략의 숫자

NP - 미국 북장로회 NM - 미국 북감리회 SP - 미국 남장로회 SM - 미국 남감리회
 AP - 호주 장로회 CP - 캐나다 장로회 CE - 영국성서공회 Others (기타)- 영국구세군, 미국동양선교회 등
 (출처: 류대영, 2001, p. 95)

호 사건은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이어지면서 이후 미국 및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류대영, 2004).

이와 관련하여 이광호(1987)는 초기 외국인 선교사의 조선 진출과 선교교육의 설립배경을 그들의 선교상의 필요와 더불어 새로운 서구의 근대사상과 문물을 수용하려는 조선의 개화사상에 대한 내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류대영(2001)은 초기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 선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 첫째, 미국의 중류층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이들의 95%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등의 보수교파 파송 선교사인 것을 지적하였다(〈표 1〉 참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84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는 대략 총 497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77%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는 북장로회 파송 선교사가 33.1%(165명)로 가장 많으며 북감리회 22.9%(114명), 남장로회 12.4%(62명), 남감리회 9.2%(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장로회 소속 5.4%(27명), 캐나다 장로회 소속 3.0%(15명), 영국교회 소속이 3.2%(16명), 기타 10.8%(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대영(2001)은 특히 이들 중 미국인 선교사들의 대거 진출은 19세기 초 미국 전역에서 부흥한 ‘대학생 해외선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의 영향이 큰 것으로 설명하면서 1905년부터 1909년 기간 중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 139명의 미국인 선교사 중 81명이 ‘대학생 해외선교 운동본부’에서 파송된 선교사인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교육 및 파송 단체 배경은 현재 이들 선교사들의 역사적인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아카이브(Princeton Theological Society archives), 미국 드류 대학교 아카이브(Drew University archives), 미국 장로교회 아카이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archives) 등은 이러한 예가 되고 있다.

2.2 주요활동 및 업적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주요활동은 의료, 교육, 선교, 출판, 구제 사업 등 다양하며 이는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그룹의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높고 성실하며 목표 지향적 성향이 높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인 선교사의 경

우 '대학생 해외선교 운동'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yu, 2001).

이만열은 그의 연구(1985/2001)를 통해 이들 선교사가 선교활동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교육, 성경번역, 고아원설립, 저술, 사전편찬, 출판

등을 담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 뿐 아니라 당시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 저서, 일기 등을 참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자료는 선교사 가족

〈표 2〉 우리나라 초기 주요 선교사 입국년도, 지원/파송단체, 활동/업적

선교사 성명	입국년도	지원/파송단체	활동/업적/기타
알렌 (Horace Allen)	1884	미북장로회	광혜원 설립(이후 제증원), 의사, 미국공사관 관료 등으로 활동
언더우드 (Horace Underwood)	1884	미북장로회	제증원 의학교에서 가르침, 고아원 겸 학교설립(경신 학교 전신- 후에 연희전문학교로 발전) <한어자전> <한영문법> 등 저술
아펜젤러 (Henry Appenzeller)	1884	미북감리회	배재학당, 정동교회 설립
스크랜튼 (William B. Scranton)	1884	미북감리회	제증원 의사, 시병원(민간병원) 설립, 상동교회(민중 교회) 창설
스크랜튼 대부인 (Mary F. Scranton)	1884	미북감리회	스크랜튼 선교사 어머니. 이화학당 설립
헤른(J. Heron)	1885	미북장로회	제증원 2대 원장. 1890 이질로 사망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미국선교사
엘러즈(Annie Ellers)	1886	미북장로회	제증원 여의사(부녀과 설립), 정동여학당 설립
게일(James Gale)	1888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YMCA	개인자격으로 선교, 연동교회 초대목사
펜윅(M.C. Fenwick)	1889	캐나다 토론토 실업인들	개인자격으로 선교
데이비스 (J.H. Davis)	1889	호주 장로회	1890년 병사. 1891년 매케이(J.H. MacKay), 멘지스(B. Menzies), 포우셋(Fawcett), 페리(J. Perry) 등이 한국에 파송되는 결과로 이어짐
하디(R.A. Hardie)	1890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 기독교청년회	의사, 감리교신학교, 협성신학교에서 가르침
마펏(마포삼열) (Samuel Moffet)	1890	미북장로회	평양달다리교회(장대현교회) 설립
레이놀즈 외 (W.D. Reynolds)	1892	미남장로회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레이놀즈(W.D. Reynolds), 테이트(L.B. Tate), 전킨(W.M. Junkin) 등 총 6명이 남장로회 첫 선교사로 한국 도착 성경번역
에비슨(Oliver Avison)	1893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 기독교청년회	제증원의 4대 원장, 세브란스병원과 의학교 설립
맥켄지 (W.J. McKenzie)	1893	캐나다 메리타임즈 지역 장로교학교 선교협회	황해도 소래에 복음전파. 1895년 사망
리드(C.F. Reid)	1895	미남감리회	남감리교회 파송 최초선교사
그리어슨, 맥레, 푸트	1898	캐나다 장로회	맥켄지 죽음을 계기로 캐나다 장로회의 한국선교 본격화. 이전의 토론토에서 온 선교사들은 개인자격이었음
카우만, 킬보른	1907	미국 동양선교회 (Oriental Missionary Society)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이후 성결교회) 설립
호가드(R. Hoggard)	1908	영국 구세군(The Salvation Army)	첫 구세군 선교사로 활동

의 저서 혹은 연구보고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적응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다(Underwood, 2003/2004).

이광호(1987)는 북장로교회 선교사의 경우 교육보다는 의료사업을 통한 선교에 치중한 반면 북감리교는 처음부터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분명히 분리하여 선교사를 파견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사업만을 위해 최초로 파견된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의사의 어머니인 M.F. 스크랜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펜젤러는 북감리교회 남학교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스크랜튼 부인은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표 2〉는 우리나라 초기 주요 선교사들의 입국년도, 지원/파송 단체, 주요 활동 및 업적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84년 미국 북장로교,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캐나

다 선교사, 호주 장로회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였고 뒤를 이어 미국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동양선교회, 영국구세군 소속 선교사들이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UCLA 온라인아카이브(compiled by Sung-Deuk Oak)에는 1885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파송된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의 출신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표 3〉 참조) 이들의 47.9%가 장로회 소속인 맥코믹신학교 혹은 프린스턴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다수의 자료가 프린스턴신학교 혹은 맥코믹 신학교와 같은 장로회 신학교 혹은 북장로회 아카이브 등에 수집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선교사들의 파송단체 혹은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소장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초기 미국인 선교사(1885-1910)

선교사 출신 신학교	선교사수(명)	비율(%)
McCormick T. S. - Chicago (맥코믹 신학교)	18	25.4
Princeton T. S. - New Jersey (프린스턴 신학교)	16	22.5
Union T. S. - Richmond (유니온 신학교 - 리치몬드)	9	12.7
Auburn T. S. - New York (오우번 신학교)	6	8.5
Union T. S. - New York (유니온 신학교 - 뉴욕)	4	5.6
Kentucky P. T. S. (켄터키 장로회 신학교)	4	5.6
Omaha T. S. - Omaha, NE (오마하 신학교)	3	4.2
San Francisco T. S.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3	4.2
Others (기타)	5	7.0
Unidentified (출신학교 미상)	3	4.2
총합계	71	100

출처: UCLA Online Archive, prepared by Sung-Deuk Oak
<http://koreanchristianity.humnet.ucla.edu/biographies/missionaries>

3. 선교사 자료의 현황 및 전문가 조사

3.1 선교사 자료의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 관련 자료는 주로 선교사 보고서, 편지, 일기, 저서 등 다양하며 이러한 자료는 주로 이들을 파송한 선교회, 출신 신학교, 선교사 가족, 국내 기독교 역사 관련 기관, 정부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표 4〉는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의 기관 혹은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선교사 기록물 소장현황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선교사 기록물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통합검색이나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은 현재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중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교단체에 보낸 보고서나 일기, 리포트 등에 대한 자료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특히 선교사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사진 등의 개인 소장자료에 대한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사례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례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자료통합시스템의 경우는 검색 포털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언더우드’를 검색하면 총 1,162건의 자료가 검색되는데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경우 선교사 관련 신문, 잡지, 교재, 미감리회 강령과 규칙 및 교회조례 등의 원본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내부 연구자들에게만 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양화진문화원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및 인물 연구 및 자료를 출판하고 있으며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모원에 안장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초기 외국인선교사들과 관련된 원본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기관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초기 외국인선교사 자료의 복사본이나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를 다량 소장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초기 미국인 선교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장로회 아카이브 자료는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혹은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펜젤러 선교사가 졸업한 미국 남감리교 소속 드루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에도 남감리교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뉴욕공공도서관에도 알렌,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나 자료의 수가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CLA 온라인 아카이브의 경우는 UCLA의 교수 개인이 만든 한국기독교역사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로 한국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사, 논문, 일기, 사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소장 사례는 극히 일부 사례이며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기록물에 대한 총체적인 검색 포털시스템이나 체계화된 메타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전략은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표 4〉 국내외 선교사 기록물 소장 사례

기관명/아카이브명	소장/수집내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선교사들의 저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선교사 연구자료, 보고서, 학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ttp://www.ssu.ac.kr/web/museumeng/intro_a	기독교 기관 및 선교사들이 발행한 신문·잡지, 초기 신학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 미감리회 강령과 규칙 및 교회조례 등을 소장 및 전시
양화진문화원 http://www.yanghwajin.re.kr/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선교사와 순교자기념관에 현양된 순교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및 인물 연구와 자료 출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http://www.kchmuseum.org/	언더우드·아펜젤러가 공동으로 번역하여 간행한 <마가의전한복음 언해>(1887), 언더우드와 게일 등이 공동 편찬한 <한영사전>(1894년)과 <한영문법>(1915년), 사진, 선교사 일기, 선교사들의 저서, 선교사연구자료 등을 소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http://ikch.org/home.php	한국교회사 자료를 조사, 수집, 연구, 보관, 선교사들의 저서, 보고서, 선교편지 및 외교편지, 서신 자료집,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보낸 편지 및 한국에서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 선교사연구자료를 문서 혹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소장
뉴욕공공도서관 http://www.nypl.org/	알렌,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 저서, 보고서, 일화, 노트 등의 책,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
미국북장로회 아카이브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http://history.pcusa.org/	미국 북장로회 PC(USA)의 National Archives는 1880년대부터 파송된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의 기록물 소장. Index DB(Database Index to Foreign Missionary Personnel Files)를 구축하여 초기선교사들의 개인프로파일 정보 제공
프린스턴신학교 도서관 아카이브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http://ptsem.edu/library/	미국 북장로회 PC(USA) 소속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소장 초기 선교사 자료로 저서, 연보(annual reports), 기사 등의 자료 소장
드루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Drew University) http://www.drew.edu/library/	미국 남감리회 소속 드루대학교는 아펜젤러가 졸업한 신학교로 초기 남감리교 선교사 관련 저서, 논문, 연차보고서, 학회보고서 등의 책,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
UCLA 온라인 아카이브 http://koreanchristianity.humnet.ucla.edu/	UCLA의 교수가 만든 한국기독교역사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로 한국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사, 논문, 일기, 사진 등의 자료 제공

3.2 전문가 조사

3.2.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와 더불어 초기선교사에 대한 연구자 혹은 선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선교사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 자료수집 방법, 자료이용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관련 연구자 집단인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초기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총 7명을 대상으로 (〈표 5〉 참조) 실시하였다. 전문가 선정 방법은 우선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면담과정을 통해 선행 면담자의 추천을 통해 다음 면담 참여자를 확보해가는 눈덩이표본추출 방식(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표 5〉 인터뷰 대상자(Interview Participants)

면담자	신분/전공
P1	명예교수(역사학, 기독교사)
P2	교수(역사학, 기독교 연구소 관장)
P3	교수(고고학, 기독교 박물관 관장)
P4	교수(신학)
P5	연구원(역사학, 기독교사)
P6	연구원(역사학)
P7	초기 선교사 가족

면담내용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 정보수집 방법, 자료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면대면 개별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소요시간은 대략 60분에서 80분간 진행되었다.

3.2.2 분석결과

전문가 심층면담에 대한 분석결과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 자료수집 방법, 자료이용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한 면담자의 응답 중 여러 응답자의 공통적인 내용은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원문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현존하는 선교사 직계가족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으로 나누어졌다.

1)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원문자료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희는) 미국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일본자료 등은 많지만 영국 SPG 성공회자료, 호주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오리지널자료는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연세대 등에 선교사자료 및 신문이 일부 존재합니다.”

“목록집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원문서비스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유출 및 반출문제 등으로 자관 목록제공만 가능하며 자관자료를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을 미국 같은데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가져와 보니까 아주 해상도가 낮아요. 지금 ~에 있는 것을 보면 편지들을 모아 놓았는데 읽기가 곤란한게 많습니다.”

2) 초기 선교사 자료 중 아직 현존하는 직계가족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의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존하는 선교사 혹은 가족의 구술사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엘 모팻 선교사 두 번째 사모님이 96세로 현재 프린스턴에 계세요. 이외에도 McCune 선

교사님 외손자가 위스콘신에 역사학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현존해 계실 때 찾아가서 녹취도 하고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분들 구술사자료가 필요합니다.”

“~ 발굴하셔야 할분들 중 레놀드, 오웬, 포사이트 등 의료선교를 하며 활동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둘째, 초기선교사자료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로 국내자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며 국외의 원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해외에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해 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초기선교사에 대한 연구자들은 주로 국내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몇몇 주요기관의 자료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간 곳이 기독교역사연구소입니다. 그곳의 자료들의 상태와 양을 보고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남장로교 같으면 장로교 아카이브로 가고, 감리교 같으면 감리교 아카이브로 가고~”

“기독교박물관, 연세대, 장신대 도서관, 성서공회 도서관 귀중본실... 대략 기독교 자료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숭실대학의 한국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등에 오리지널 자료가 있고~ 연세대학은 선교사들이 발간한

문서들 가운데 본국에 보내고 여기에 남긴 것 가운데 일부 오리지널 자료가 더러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독교신보,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1905~1941년 자료는 ~ 매월 한국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2) 국외 자료이용을 위해서는 원문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해외에 나가서 원자료를 복사를 해오거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만들어 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데 해외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미국이나 영국을 수차례 방문해서 신학교 도서관이나 선교회 아카이브를 찾아내고 복사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머무르며 조사해야 했습니다. 어떤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 후에 이러한 자료들을 더 이상 연구실에 둘 수 없어서 관련기관에 기증을 하였으나 얼마나 이러한 자료가 향후 잘 보존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3) 자료를 찾는데 중요한 요인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의 소장처를 알아내고 찾아보는 것이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같이 근대사 연구를 했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정보교류하고 자료를 찾아다닙니다.”

셋째, 초기 선교사 자료에 대한 이용방법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결과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디를 가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대표적인 아카이브가 존재

하지 않으며 선교사 자료가 영어로 된 자료가 많아서 언어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료에 대한 보존 상태가 매우 취약하며 인적, 재정적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교사자료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정보검색시스템과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그리고 원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구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1) 연구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자료를 찾기 위한 대표적인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 역사하는 사람은 이차자료를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자료소재 정보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료를 찾고 원자료를 보관합니다. 대학도서관, 연구소 등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이용했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2) 선교사기록물의 대부분이 영어로 된 자료이므로 언어적인 장벽이 있다.

“국내에서 한자 읽으시고 그런 것은 훨씬 강하신편데 ~ 이분들이 영어가 약하시고 방법론이 구식이다 보니 영어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줄 모르시는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3) 현재 선교사 자료에 대한 보존 상태는 대체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에 있는 것을 보면 (선교사)편지들을

모아 놓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들 적에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키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4) 선교사 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프로젝트이든 기대하는 마지막 작품이 예상이면 그것을 역추적 역순을 해서 기관과 인력과 재정이 투입이 될 것인 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이 나와야 하거든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도 참 어려운 재정지원의 문제가 큰데요. (자료가) 엄청나게 고구마 줄기처럼 퍼지거든요. 어디에서 커팅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에서~ 토핑도 많고, 아이템도 많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국가도 다양하고 퍼스널 한 것과 오피셜 한 것의 구분도 있어야 하고~.”

5) 선교사 자료를 찾기 위한 통합정보검색시스템이나 표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저희가 자체 정리한 목록집이 있는데~ 혹시 도서관이나 개인 연구자, 교수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분들이 소재 파악을 못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에서 표준유물분류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화 되어 있고~유물분류 DB시스템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들었으나 기관에 적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개신교의 역사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총망라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산재해 있는 자료 및 기관들을 네트워킹 해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4.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4.1 선교사 자료의 수집 및 보존체계 수립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기 외국인 선교사 1세대 혹은 직계 자녀들의 고령화로 이들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문서, 사진, 혹은 구술 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아무리 서둘러도 이르지 않은 현실이다. McKemmish, Gilliland-Swetland, Ketelaar(2005)는 기록 혹은 기록물 보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연구소 혹은 관련기관의 평가기준이나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물을 선별하고 정리, 기술, 보존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초기 선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이 국내외 연구소, 박물관, 대학도서관 등에 산재해 있으며 수집 및 보존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기준이나 체계적인 표준화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각 기관마다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영주와 김수자(2005)는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사 관련 기록물 보존 상태는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자료 담당자의 부재, 공간의 협소함, 재정의 부족 등으로 설

명하였다.

초기 선교사 관련 기록물의 경우도 선행연구, 현황조사 및 전문가 조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와 유사한 실정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선교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은 현재와 같은 각 기관의 수집, 보존, 관리의 개별적인 방법에서만 단계 더 나아가 기관들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선교사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본 장에서는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단 본 논문에서는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및 방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사 자료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기관들이 수집, 정리, 및 보존에 대한 업무 분담 및 중복 수집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통해 원자료에 대한 소장 정보와 더불어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협약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자료에 대한 디지털보존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4년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KORCIS)을 개발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시스템 등의 개발

을 통한 역사자료의 DB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장운금, 2012). 또한 강순애(2008)는 역사자료 DB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협의회와 같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관련 기관들 간에 업무 분담 및 중복 수집 방지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선교사 관련 자료 역시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DB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수집 및 보존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기준이나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아닌 표준화된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김주관(2006)은 문화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한 실용적 측면으로 다양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를 통일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된 자료를 영구 보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용자가 검색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산재해 있는 선교사관련 기록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구축은 향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DB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원본성, 진본성의 유지 및 완성도 높은 메타데이터 구축 등 내용적 측면의 지속적인 기술 및 도구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함한희와 박순철(2006)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이 기술적 선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본성, 진본성의 유지 및 완성도 높은 메타데이터 구축 등의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인터뷰 응답 내용 분석에서도 언급된 것 같이 현재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자료를 복사본 혹은 마이크로필름 등의 상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을 이용자 측면으로 보면서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에 대한 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윤은하, 2012; McKemmish, Gilliland-Swetland, & Ketelaar, 2005).

다섯째, 선교사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확보와 방안이 요구된다. 최은주와 이정연(2009)은 정보시스템 설계 보안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책임기관, 절차, 내용, 기탁 및 윤리적 법적인 정책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및 연구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교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역사 및 외국인 선교사 관련 문헌조사결과 1884년부터 일제강

점기 이전인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는 대략 총 49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7% 정도가 미국인 선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북장로회 파송 선교사가 33.1%(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북감리회 22.9%(114명), 남장로회 12.4%(62명), 남감리회 9.2%(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장로회 소속 5.4%(27명), 캐나다 장로회 소속 3.0%(15명), 영국교회 소속이 3.2%(16명), 기타 10.8%(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파송된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47.9%가 장로회 소속인 맥코믹신학교 혹은 프린스턴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선교사들의 파송단체 혹은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소장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 혹은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선교사 기록물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통합검색이나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은 현재 매우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교단체에 보낸 보고서나 일지, 리포트 등에 대한 자료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히 선교사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사진 등의 개인 소장자료에 대한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사례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기록물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실시한 초기선교사에 대한 연구자 혹은 선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1)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한 면담자의 응답 중 여러 응답자의 공통적인 내용은 선교사 기록물에 대한 원문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현존하는 선교사 직계가족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초기선교사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의 분석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로 국내자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며 국외의 원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해외에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해 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기선교사자료에 대한 이용방법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표적인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교사 자료가 영어로 된 자료가 많아서 언어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료에 대한 보존 상태가 매우 취약하며 인적, 재정적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교사자료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정보검색시스템과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원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구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기록물의 디지털아카이빙 구축방안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관련 자

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선교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은 현재와 같은 각 기관의 수집, 보존, 관리의 개별적인 방법이 아닌 기관들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자료의 공유 및 장기보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 및 활용을 최대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에 대한 확보와 구체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전문가 조사를 통한 문제점 제시 및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방안은 향후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의 범위는 1800년대부터 일본강점기 이전 191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향후 연대별 혹은 주제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08).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39-60.
- 김주관 (2006).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447-483.
- 류대영 (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백영주, 김수자 (2005).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5-21.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이광호 (1987).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 1888-1895를 중심으로. 원우론집, 15, 193-218.
- 이덕주 (1995). 초기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만열 (1985).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 아펠젤러. 기독교사상, 332, 60-75.
- 이만열 (2001).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9-46.
- 장윤금 (2010).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93-203.
- 최은주, 이정연 (2009).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4), 277-298.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4.277>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한국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 함한희, 박순철 (2006).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문제점과 방향: 문화원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23-42.
- 홍치모 (1984).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신학지남, 201, 128-139.
- McKemmish, S., Gilliland-Swetland, A., & Ketelaar, E. (2005).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46-174.
- Ryu, D. Y. (2001). Understand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10): Capitalist middle-class values and the Weber thesis.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113, 93-117.
- Underwood, E. (2003). Travel in Korea: Missionary encounter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78, 3-19.
- Underwood, E. (2004). Challenged identities: North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34. Seoul: Royal Asiatic Society.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Yunkeum (2010). A study of digital archiving strategies for historic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93-203.
- Choi, Eun-Ju, & Lee, Jung-Yeon (2009). A study on designing and developing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web oral history archives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4), 277-298.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4.277>
- Hahm, Han-Hee, & Park, Soon-Cheol (2006). Digital archives of cultural archetype contents: Its problems and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23-42.
- Hong, Chi-Mo (1984). Early American missionaries' faith and theology. Theological Compass, 201, 128-139.
- Kang, Soon-Ae (2008).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39-60.
- Kim, Ju-Kwan (2006). Cultural material and digital archive development. Regional History and Regional Culture, 9(2), 447-483.
- Korea Christian History Research Institute (1989). Korea christian history I. Seoul: Christian Biblia.

- Lee, Duk-Ju (1995). Early Korea christianity history research. Seoul: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 Lee, Kwang-Ho (1987). A study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education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1888-1895. *Alumnus Collection*, 15, 193-218.
- Lee, Man-Yeol (1985). Korea early missionary, *Appenzeller. Christian Spirit*, 332, 60-75.
- Lee, Man-Yeol (2001). A study on the missionary Underwood's early activities. *Korea Christianity and History*, 14, 9-46.
- Paik, Young-Joo, & Kim, Soo-Ja (2005).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On the materials of women's policies and of women's organizations from 1945 to 198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5-21.
- Ryu, Dae Young (2004).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t the turn of the century. Seoul: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63-179.

